

사진 : 박용득(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56년 김덕준, 하상락 교수님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된 한국사회복지학회가, 1979년 처음으로 학회지를 발행하고 이제는 등록회원만 800여명이 넘는 괄목할만한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아 니 시대의 변화를 선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평을 넓히고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학회의 주어진 과제라고 말하는 성민선 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우선 늦었지만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이런 저런 소임을 맡는 것은 학회 회원들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또 경험해보아

한국사회복지학회 성민선 회장(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잠재력과 인적자본이 축적된 학문공동체이자 실천공동체

학회운영에 있어 조정자, 촉진자 역할로 만족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역량 강화 노력

야 하는 영예로운 책임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학회에 모인 엄청난 인적자본의 역량이 학문과 사회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만 한 사람의 조정자, 촉진자 역할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구성원들의 지원이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 현재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시면서 생각하시는 학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운영은 임원진과 협의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영문 저널을 발간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선임 학회장들께서 길을 터놓으신 한일학술교류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 등 회원들의 요청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 사회복지 학문 발전에 평생을 기여해 오신 선배학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사업도 덧붙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3. 요즘 들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침해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및 역할 제고에 대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과 학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교육훈련 및 수급계획에 관한 국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마치 각 전문집단간에, 알아서 하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아니냐는 식으로 방임내지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눈들이 많아야겠어요. 한편 사회복지사들도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더 조직적으로 애써야 하고,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들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4. 사회복지가 세분화됨에 따라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학회로서는 단체들의 활동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학회는 학회의 할 일을 잘 하고 다른 단체들은 각기 그 목적에 맞게 할 일들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사회복지의 윤리원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나 이해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문화 더 나아가 국민의 사회복지에 최우선 관심을 두는 그런 전문단체라면 아무리 많아도 나쁠 것이 없겠지요.

5. 앞으로 학회와 타 단체와의 연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어떤 방향으로 협조해나가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회와 협회 그리고 교육협회의 3단체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군대에서 전문상담관인 군고충상담관을 배치한다고 하는 문제에 접하여 3단체가 신속하게 회동했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였던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독단은 항상 부작용을 불러오지요. 협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고 항상 좋은 대안이 나옵니다. 행동을 하는 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이 크고, 사회복지사협회가 김성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힘 있는 사회복지사용호단체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사회복지계에 바라시는 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환경의 맥락 속에서 조성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변화 속에서 변화와 씨름하는 사회체계 변화대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계는 변화하는 환경에 억지로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안목과 실천역량을 갖추고 이 사회를 살기 좋은 국토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사회에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공동체의식과 상부상조입니다. 학회는 학문공동체로서 협회는 실천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사회적 현안에 긴밀하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 (<http://kasw.or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7관) 310호

Tel : 02-2164-4299

E-mail : kasw@kasw.org